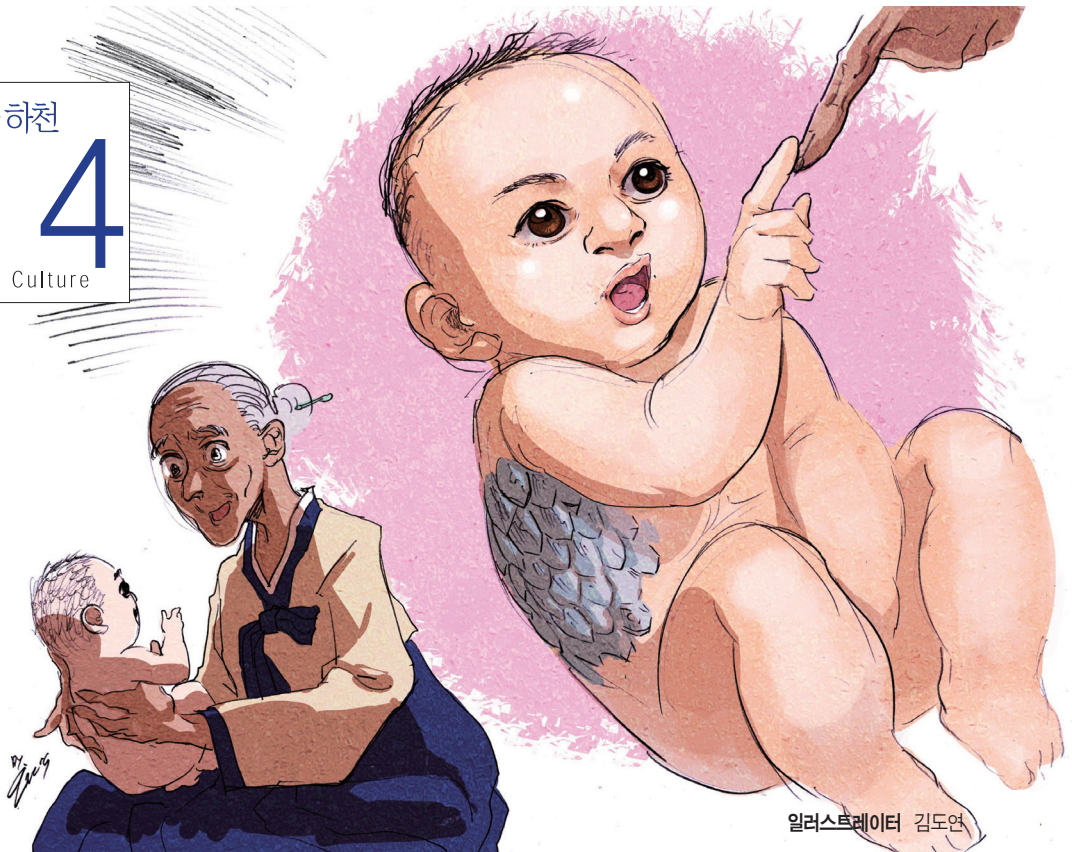


인간과 하천

4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김정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설화속 물고기 이야기

잉어는 영적 물고기 불가에선 수행의 징표

우리의 전래 설화에 잉어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오면서 그 잉어를 영적인 물고기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 예로, 잉어는 오래 살면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간다 하는 이야기 같은 것이었다.

잉어는 민물고기로서 하천이나 늪, 저수지에서 사는 물고기이다. 그리고 여느 물고기에 비해 몸집이 크다. 큰 것은 1m 가 되기도 한다. 등은 검푸르고, 배는 담황색을 띤다. 주둥이는 두툼하게 보이며 입가에는 두 쌍의 수염이 달려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하천이나 연못 또는 늪 같은 곳에서 살

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쉽게 접촉이 되는 물고기였다. 이런 이유에서 설화에 쉽게 담아지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 한국인에게 윤씨(尹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윤씨 성에서 본관을 파평(坡平)으로 하는 파평윤씨가 있다. 이 파평윤씨 사람들은 잉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래되는 이야기가 있어서였다.

한양 가까운 파평 땅에 용연(龍淵)이라는 큰못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난데없이 못 주위에 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해 지더니 천둥치는 소리가 크게 났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이



상하게 여기고 그 못 주변을 지켜보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못 주변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쾌청하였다.

그때 마을에서는 한 노파가 빨래하러 못가로 왔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옥함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건져내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그 속에는 귀엽게 생긴 옥동자 한명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옥동자를 옥함 밖으로 꺼내보니 옥동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에 81개의 비늘이 붙어 있었다. 마치 잉어의 비늘과도 같았다.

노파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생각하고 거뒀길렀는데 뒷날 아이가 자랐을 때는 자기가 쓰던 성 윤씨 성을 붙여주었다. 훗날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나라에 이바지한 유명 인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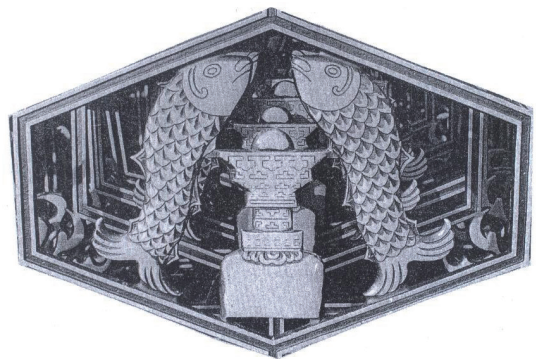
이 설화는 과평윤씨의 시조인 윤신달(尹莘達)의 출생에 얽힌 설화였던 것으로 왜 잉어에다 그런 출생의 설화를 담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지금도 과평윤씨 사람들은 잉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

이 있다. 낚시를 하다가 잉어를 잡게 되면 도로 놓아준다고도 하였다. 그 이유에서는 앞서 내용과 같은 설화 때문이란 말이 있었다.

혹자는 尹(윤)이란 글자가 상형문자로 볼 때 잉어의 모습과 같은 데서 그런 설화가 나온 것이라 했다.

물고기와 연관을 둔 성씨의 설화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김해김씨(金海金氏)가 있다. 김해김씨는 한 쌍의 물고기를 성씨의 징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한 쌍의 물고기는 바로 잉어였다.



김해김씨의 상징인 쌍어(雙魚)

왜 잉어를 성씨의 징표로 삼았느냐 하는 것에는 수로왕의 비 허황후가 아유타국에서 바다 건너 가락국으로 올 때 한 쌍의 큰 잉어가 호위를 해서 왔다는 데 있었다.

아유타국은 오늘날 티베트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중국에서는 서장(西藏)이라 하였다. 가락국에서 쌍어를 성씨의 징표를 삼은 것에는 허황후를 무사히 건너오게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 후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상징성을 두는 데 있었다.

가락국은 낙동강 하류를 끼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옛 가락국 시대도 잉어이든 잉어 고기가 아니었던 간에 물고기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강물 고기나 바다 고기를 무슨 이야기꺼리나 상징성을 삼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게 된다.

잉어는 출산 후 산모에게 좋다는 보약의 물고기이기도 했다.

불가(佛家)에서는 잉어를 수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절에 가면 물고기의 그림을 쉽게 접한다. 사실 물고기는 불교의 신앙에서 부처의 심장을 보호하는 신으로 이야기되었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가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 물 속에 거처하면서 수행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작은 물고기는 또 자기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데 있었다. 그 깨달음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누구든 자비심(慈悲心)을 가져야 한다는 바로 불가의 중심교리가 된 것이다.

아유타국은 일찍부터 대승불교가 성했다. 이 대승불교의 교리는 개인을 떠나 대국적 견지에서 세상만물을 보는 한 종교관이었다. 오늘날 화엄종(華嚴宗), 천태종(天台宗)이 이 불교의 종교관에 속했다.

잉어의 눈을 보면 항상 동그랗게 뜨고 있는 모습이다. 잉어는 또 눈을 감지 않는 상태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그리고 죽을 때도 눈을 뜬 상태다. 불가에 몸담은 승려도 수행시는 잉어의 눈처럼 항상 눈을 뜬 상태에서 정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잉어는 보은의 이야기가 많다. 은혜를 갚는 물고기로 알려진 것이다.

고려 명종 때 시문에 뛰어난 임춘(林椿)의 시에 잉어의 보은을 표현한 게 있었다.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잉어가 비단쪽에 쓴 여인의 편지를 뱃속에 넣고 동해에서 서해 바다로 아주 멀리 헤엄쳐 나가 전했다는 내용의 시였다.

잉어를 영적인 물고기로 표현할 때는 대개 승천하는 용이었다. 이런 영물을 잡아먹을 때는 필히 벌을 받는다는 옛 사람의 말도 있었다.

옛날 여주땅에는 한 어부가 자기가 잡은 잉어가 꿈에 나타나서 제발 살려 달라는 애원을 하였으나 그 어부는 잡아먹히고 말아서 나중에 몹쓸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의 선대에서는 바다나 강물에 사는 물고기를 단순히 먹는 음식물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되는 생활의 지혜를 보이기도 하였다.

절에서 보는 목어(木魚)가 있다. 대웅전 지붕 모서리에 매달아 놓은 풍경에 물고기 모양 같은 게 매달려 있는데 이것은 어모(魚母)의 징표라 했다. 어모는 어미 물고기란 뜻이었다. 이 뜻을 가진 것은 아미타불께서 불법(佛法)으로 극락정토를 다스림에 있어서 마치 어미 물고기가 새끼를 보살피듯 하였다는 데 있었다.

옛날 민간 부녀자들 사이에는 물고기 문양을 수로 놓는 일이 많았다. 이것은 아들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한편 물고기가 유영을 할 때는 꼭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부금슬처럼 보는 데서 자수의 문양에 이용되었다고 했다. 🌊